8월 금통위 코멘트

시간 벌어주기

Economist 최제민 jmchoi@hmsec.com
RA 조준우 jjw980803@hmsec.com

- 8월 금통위, 기준금리 재차 동결(2.5%). 소비 중심 경기 개선 판단 + 금융안정에 무게 둔 결정
- 정부 규제대책 효과 있었으나 아직 집값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 위험 남아 있다는 평가
- 올해 성장률 전망치 0.1%p 상향 조정했으나 경기부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 불가피
- 당사는 올해 10월 인하, 26년 2분기 추가 인하 전망 유지하나 인하 시점 불확실성은 확대된 것으로 판단. 추후 발표될 정부 부동산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 금리 인하 시점 지연될 가능성 상존

8월 금통위, 아직 남아있는 집값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리스크 감안해 기준금리 재차 동결

- 8월 한은 금통위, 7월에 이어 재차 기준금리 2.5%로 동결, 신성환 위원은 인하 소수의견 피력
- 경기하방 위험이 소폭 완화된 반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안정은 아직 미흡한 점이 동결 원인
- 금통위,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6/27)가 집값 상승세 둔화 및 거래량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폭 감소로 이어졌으나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평가
- 실제로 규제 이후 수도권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최근 들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 둔화가 정체 되거나 소폭 반등했고, 주택가격전망 CSI도 반등
-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한은이 정부 정책의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 또한, 한국 수도권 집중 특수성 등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변화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과도 연관돼 있어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 상승 부추기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
- 한편,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이번 동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을 시사
-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잠재성장률 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
- 다만,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3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 필요성을 주장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폭 상향, 내년 전망치는 유지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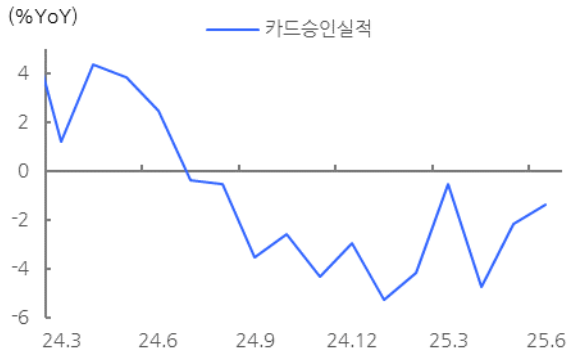
- 한은은 8월 경제전망을 통해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성장률에 대해서는 내수는 회복세 이어가는 반면 수출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상향,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유지했고, 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은 올해와 내년 0.1%p 상향, 근원은 내년만 0.1%p 상향
- 한은 전망을 종합해보면 물가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됐으나 물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성장률은 올해 소폭 상향 됐으나 장기간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 지속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이 불가피한 환경
- 다만, 금리 인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성장률이 현재 전망 경로에 부합하고 금융안정 리스크 해소를 말하고 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의 경우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 정부 대책의 효과 지속 여부와 후속대책(공급대책과 추가적인 수요 억제 보완책 등)도 지켜볼 필요성 있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

10월 인하 전망 및 26년 추가 1회 인하 의견 유지하나 인하 시점 순연될 가능성 확대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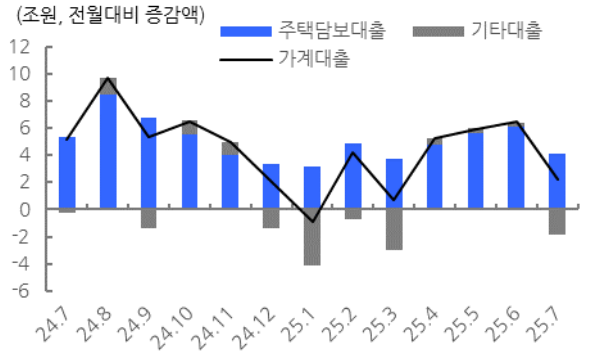
- 장기간 잠재성장률 하회중인 경제성장률과, 내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마이너스 GDP갭률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 배제하기 어려워 최종금리 2.0%까지 인하 이어질 것
- 기존 전망대로 10월 인하 이후 내년 1분기까지 동결 기조 이어가면서 성장 경로와 금융안정 상황 점검한 이후 26년 2분기에 한 차례 추가 인하 나설 것으로 예상
-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금리 인하 위한 조건(①성장 경로 전망에 부합, ②금융안정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볼 때 당분간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및 추경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올해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은 제한적
- 반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시간과 추가적인 정부 대책(수요와 공급 양측) 시행과 효과 확인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한은의 시간 벌어주기가 연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올해 남은 금리 인하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국내 카드승인실적 5월 이후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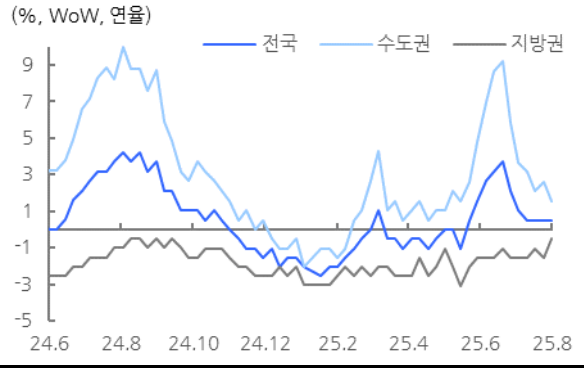
자료: KOSIS, 현대차증권

〈그림 2〉 7월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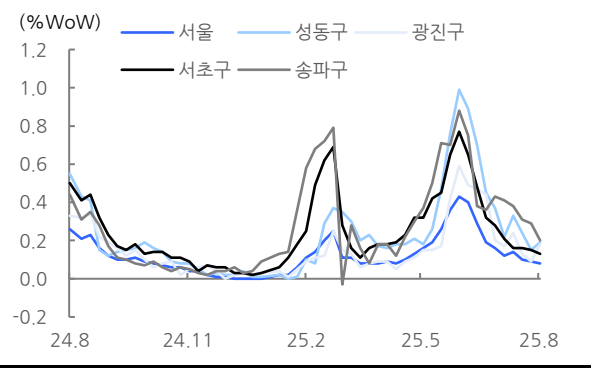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현대차증권

〈그림 3〉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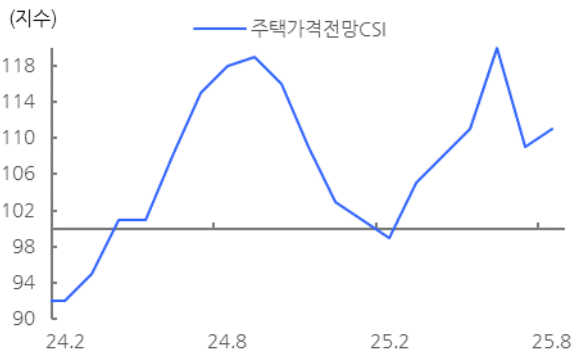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현대차증권

〈그림 4〉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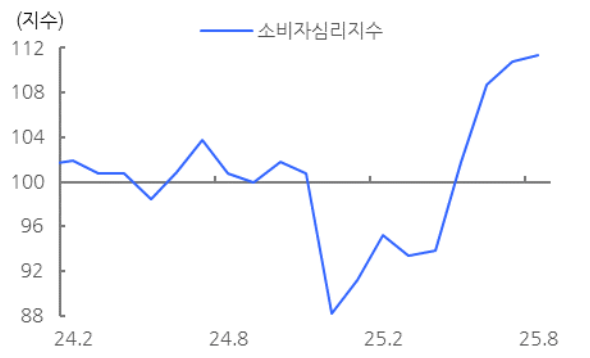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현대차증권

〈그림 5〉 주택가격전망 6.27 대책 하락했다가 반등,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



자료: ECOS,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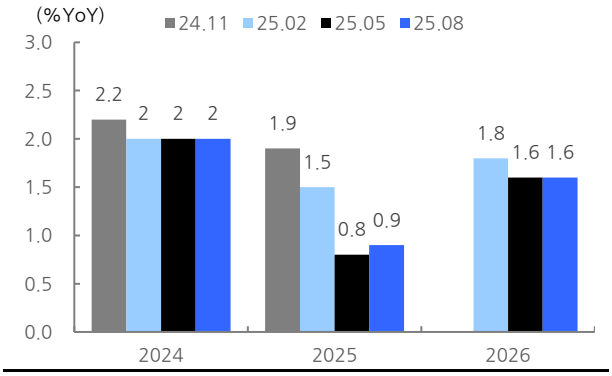
〈그림 6〉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추세



자료: ECOS,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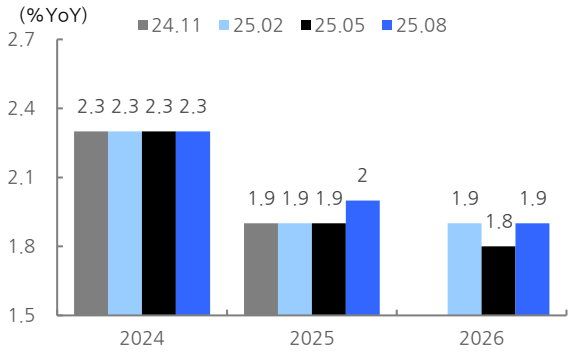
8 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그림 7〉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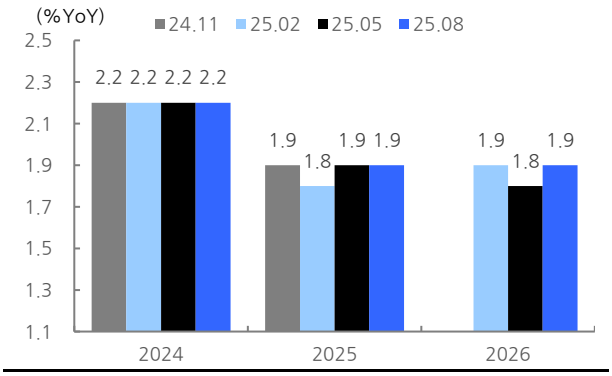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8〉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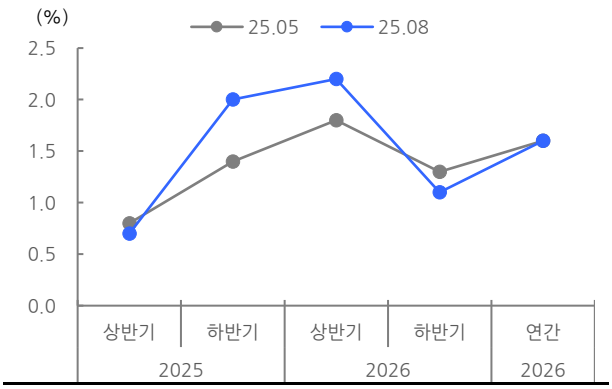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9〉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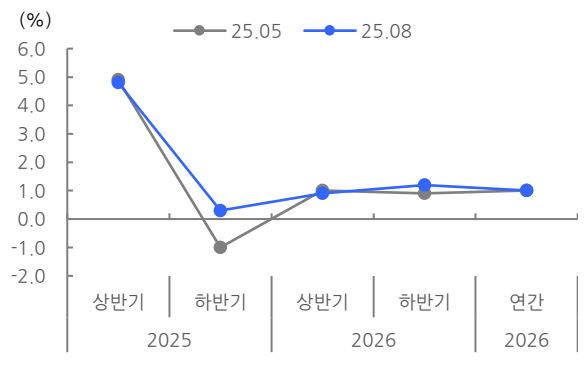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10〉 민간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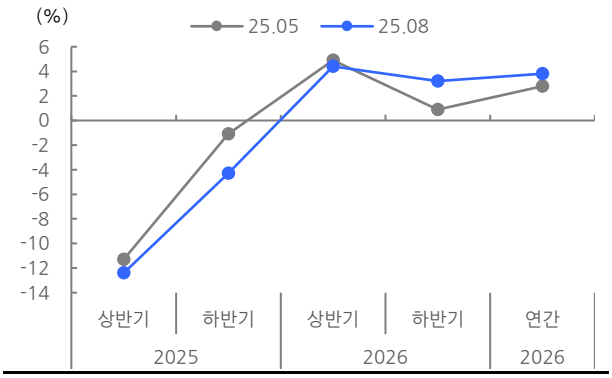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11〉 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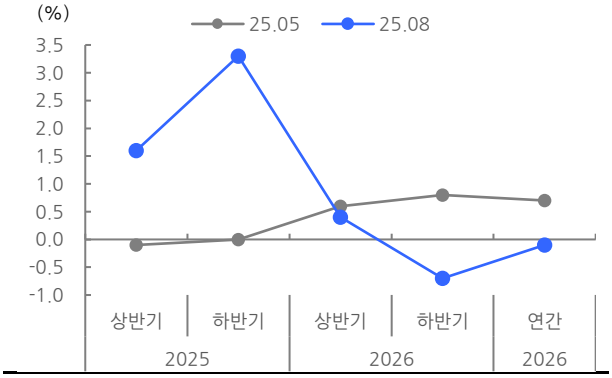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12〉 건설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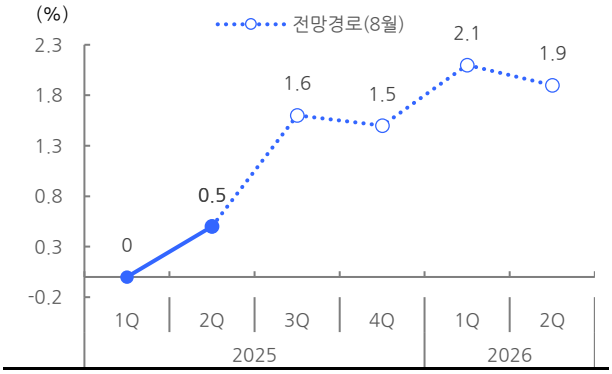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13〉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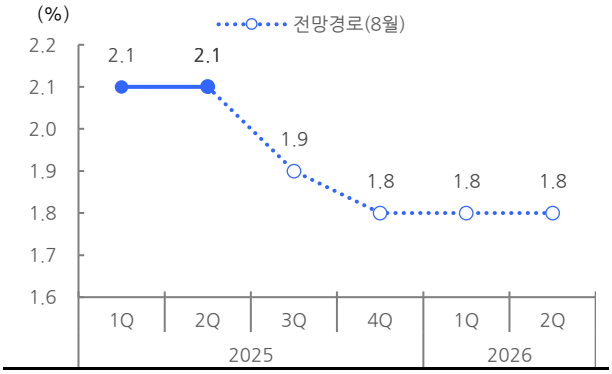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14〉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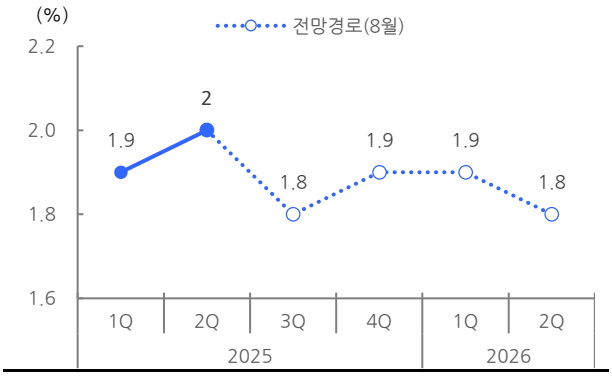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15〉 분기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16〉 분기별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변경사항

〈표1〉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변경사항

구 분	2025년 7월	2025년 8월
정책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를 보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미중 무역협상의 일부 진전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다. 미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대미 무역협상의 전개 상황,~~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플레이션	국내 물가는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지속, 농산물·석유류 가격 기저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2.6%)보다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그간 확대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향후 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한은 총재 기자회견 주요 내용

<표 2> 8 월 한은 총재 기자회견 주요 내용 요약

Q. 3 개월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와 소수 의견 배경은?

A. 다수 위원은 주택 · 가계부채 안정 미흡, 정부 정책 공조, 한미 금리차 등을 고려해 동결 의견을 냈음. 반면 소수 위원은 부동산 상승세 둔화와 미 연준 인하 가능성을 근거로 선제적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3 개월 내 전망은 5 명은 인하 가능성, 1 명은 현 수준 유지 의견

Q.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나? 1%대 금리 가능성은?

A.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되며, 상반기까지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큼. 다만 하반기 상황은 추후 전망치에 따라 판단. 최종 금리 수준(1%대 여부)은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음

Q. 한미 정상회담 및 관세 협상 결과가 금리 결정에 미친 영향은?

A. 협상 결과가 예상보다 순조롭고 긍정적이어서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음. 만약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금리 동결 결정이 훨씬 부담스러웠을 것. 따라서 이번 동결 결정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음

Q. 통화정책 대응이 늦은 것 아닌가? 인하 사이클이 축소됐나?

A. 실기 아님. 이미 선제적으로 인하했고 완화 기조 충분.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 가계부채 부작용 우려 커 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인하 사이클 축소는 아님

Q.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중앙은행 독립성 평가는?

A. 미국은 관세→물가 압력, 경기 둔화 동시 진행 중. 연준은 지표 보며 결정할 것. 통화정책 독립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은행은 정부 영향 없이 잘 유지되고 있음

Q. 성장 vs 금융안정, 앞으로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

A.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경기 · 금융안정은 상황에 따라 조율. 금융안정은 부동산뿐 아니라 환율 등 다양한 변수도 늘 함께 고려

Q. 내년 GDP 갭 전환 가능성은?

A. 현재 -1% 내외.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확대 예상, 하반기부터 잠재성장률 회복으로 갭 축소 전망. 다만 중반 이후 다시 점검 필요

Q. 지금까지 인하 효과는? 추가 인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A. 금리 25bp 인하는 성장률 +0.06%p 기여. 지금까지 100bp 인하는 약 +0.24%p 효과 추정. 추가 인하도 효과는 있으나 부동산 · 가계부채 부작용도 커 주의 필요

Q. 서울 집값 안정이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인가? 안정 기준은 무엇인가?

A.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금융안정을 가계부채 중심으로 보지만, 최근에는 집값과 부채가 동시에 오르면서 집값 흐름도 중요한 변수로 함께 고려하고 있음. 다만 금리 정책으로 집값을 직접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안정의 기준은 단순히 상승세가 둔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집값이 추가로 오를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수도권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입장임. 수도권은 인구와 주거 비중이 커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값과 월세 흐름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물가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설명함

Q. 3 개월 내 인하 가능성 언급은 최소 두 차례 인하가 보장된 것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는 확정된 것인가?

A. '두 번의 인하가 보장됐다'는 해석은 적절치 않음.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모두 성장률 전망(내년 1.6%)과 금융안정 상황이 충족된다는 조건부 가정 아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전망치가 변하거나 금융불안이 심화되면 인하 속도와 횟수는 달라질 수 있음.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도 조건부 전망일 뿐, 확정된 약속은 아님. 즉, 한국은행은 인하 방향성은 유지하되, 횟수와 시점은 경제전망 및 금융안정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조정할 것임을 강조함

Q. 저성장 우려에 대한 총재 견해는? 올해 1%대 성장은 가능한가, 상하방 요인은 무엇인가?

A.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 것은 구조적 문제(고령화, 저출산 등)이며, 노동시장 개혁 ·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 단기적으로는 관세 재협상, 산업 구조조정, 해외 투자 이전에 따른 갈등 등이 하방 요인이고, 반도체 수출 회복과 재정 지출 확대 등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음

Q. 스테이블 코인 논의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은?

A. 기재부 · 금융위와 실무 · 고위 레벨에서 논의 중이며,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자본 자유화 · 규제 체계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임. 금융위의 가상자산법 2 차 입법 과정에서도 한국은행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 중이고, 공식적인 방향은 새 금융위원장 청문회 이후 확정될 전망. 한국은행은 자체 견해가 정책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Q. 국고금 관리 사업에서 한국은행 역할은?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되는가?

A. 국고금 지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 AI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 예금 토큰을 활용해 보조금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한강 프로젝트 2 차 테스트와 연결될 예정. 2 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이 아닌 기술 · 투자 의지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임

Q. 내외 금리차 확대와 환율 변동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은?

A. 현재 내외 금리차는 사상 최대 수준(약 2%p)이나 이를 기계적으로 보지는 않음. 환율은 1,400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와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환율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금리 정책은 환율 리스크를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음

Q. 금통위에 노동계 대표를 포함하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타버트 서클 회장과의 면담 내용은?

A. 금통위는 특정 이해집단을 대변하기보다 거시경제 전체를 보는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특정 집단 대표들이 모여 금리를 결정하면 경제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임. 서클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이나, 한국 경제 상황과 서클의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만 언급

Q.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 하방 압력 요인은 무엇인가?

A. 가장 큰 요인은 건설 경기 부진. 올해 건설 투자 성장률이 -8.3%로, 전체 성장률을 2%p 이상 깎아내린 상황임. 수출은 예상보다 선방했으나 건설 부문은 구조조정 과정(과잉공급, 미분양 등)으로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 3~4 분기 바닥 이후 개선 가능성을 보지만, 부양책으로 단기 부양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최제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